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10월 27일(수) 총 4매	
담당 부서	도로과	담 당 자	• 도로계획팀장 최점수 ☎440-3771 • 담당자 이은영 ☎440-3772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동IC 진출로 추가 설치해 교통 혼잡 개선 모색

- 금년 12월~내년 11월 남동IC 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 용역 결과 토대로 남동IC 진출로 등 연결도로 추가 설치 -

인천시가 상습 교통 혼잡구간인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나들목)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진출로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남동IC 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는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월동 중심상업지역, 인천터미널 등 주요 거점과 연결되는 광역도로망으로서 1일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습 교통혼잡 구간이다.

서창JC(분기점)에서 남동IC로 빠져 나오는 차량이 인천시청과 남동국가산업단지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서로 엇갈리면서 차량의 대기행렬이 길어져 제2경인고속도로 본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향후 구월2공공주택지구, 인천터미널 복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면 교통혼잡이 현재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남동IC 개선을 통해 장래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동IC 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남동IC와 호구포로～소래로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용역을 통해 기초자료 분석 및 환경성 검토,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한 대안 선정,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비용 산정 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시행효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동IC 연결로(진출로 추가 설치 등)를 개선하면서 남동IC에서 인천터미널과 연계되는 도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근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남동IC에 진출로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남동권역의 교통 혼잡도를 낮춰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천터미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 참고 > 1. 남동IC 개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개요
2. 남동IC 개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위치도

참고 1 **남동IC 개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개요**

□ 용역개요

○ **(용역명)** 남동IC 개선사업 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동IC 및 주변지역

○ **(규모)** 연장 3.6㎞, 폭 2～4차로

○ **(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 **(금액)** 254,518천원

○ **(계약방식)** 공개경쟁입찰(PQ)

○ **(참가자격)**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남동IC 및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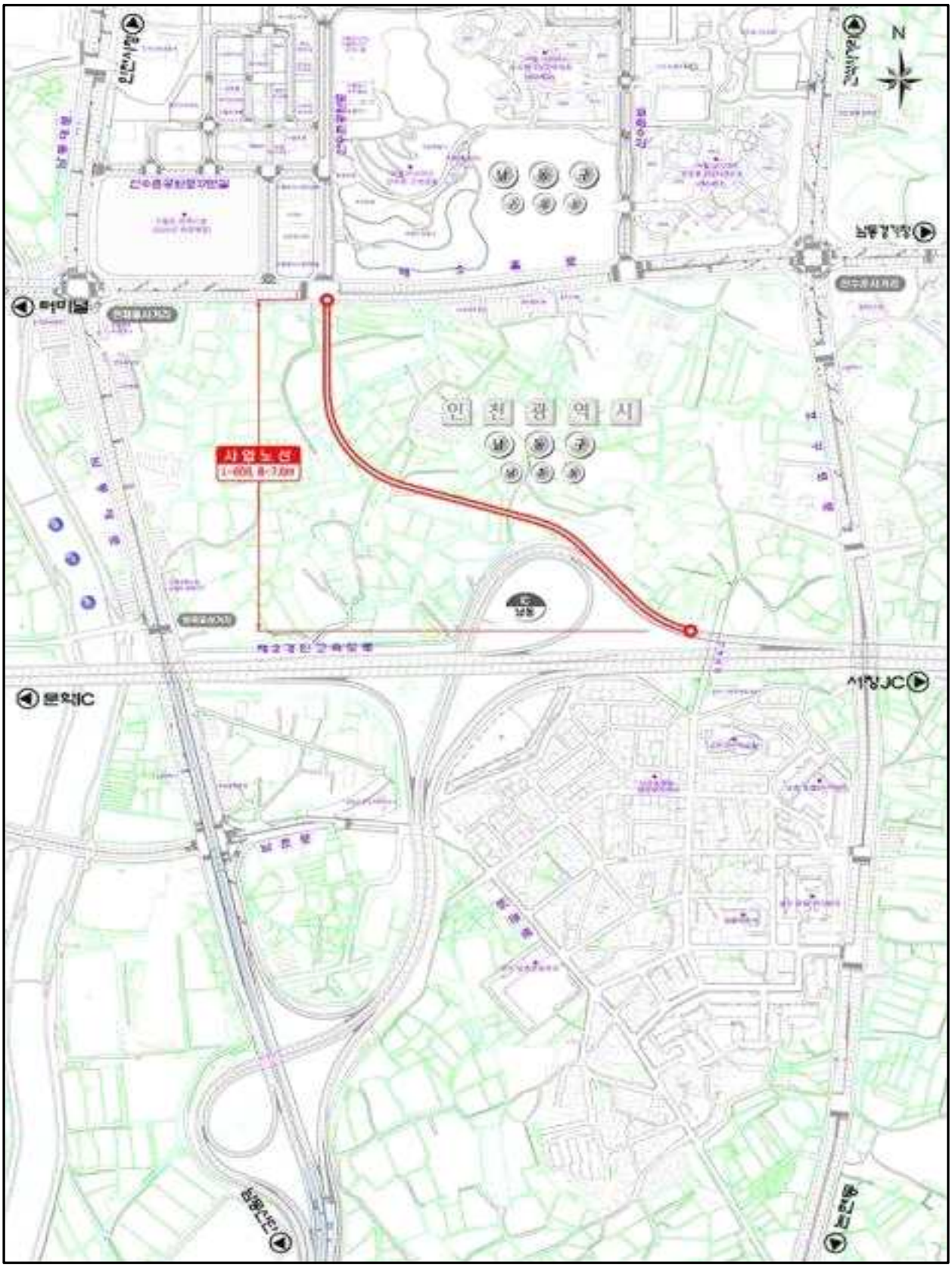
* 남동IC, 호구포로～소래로 연결도로, 기타

○ **(내용적 범위)**

- 사회경제지표, 현황조사, 관련계획 등 기초자료 분석 및 환경성 검토
- 설계기준, 관련규정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한 대안 선정
- 장래 교통수요예측, 편익 및 비용 산정,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 건설사업 시행효과 등 종합평가

□ 향후계획

○ 2021.11.: 계약의뢰(도로과→회계담당관)

○ 2021.12.～22.11.: 용역시행(도로과)

참고 2 | **남동IC 개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위치도**